

제주 매달 21억원 꼴 임금 체불 발생

올 1~8월 도내 888개 사업장서 167억 임금 체불
도소매 및 음식 숙박·건설업 순… 2150명 피해
아직도 40억 미해결… 도·노동청 피해구제 강화

올들어 제주지역에서 매달 평균 21억원 꼴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 체불액 중 75%는 뒤늦게라도 지급되는 등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25%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167억 3000만원이다. 매달 평균 20억 9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와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졌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한 도내 사업장은 모두 888곳이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총 21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896명은 내국인, 나머지 25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다. 도내 전체 임금 체불 사업장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22곳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선 246곳(27%)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비중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기타(94곳·10.5%)를 제외한 ▷금융·부동산·서비스업(85곳·9.5%) ▷제조업(55곳·6.1%) ▷운수창고 및 통신업(40곳·4.5%) ▷전기·가스 및 수도업(7곳·0.7%) 등의 순으로 임금 체불이 잦았다.

임금 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체불 규모는 건설업이 가장 컸

다. 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임금 체불 액수는 63억 1700만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2억 8700만원·19.6%) ▷금융·부동산·서비스업(15억 7100만원·9.3%) ▷제조업(13억 8500만원·8.2%) ▷운수창고 및 통신업(5억 9000만원·3.5%) 등의 순이다.

또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29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이들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무려 86.2%에 달했다.

전체 임금 체불 규모 중 75.8% (126억 8500만원)은 노동청 신고 후 지도 해결을 통해 뒤늦게 지급돼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나머지 40억 4500만원의 체불 임금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사업주가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임금을 뒤늦게 지급 받았어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노동청 신고 후에도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노동청 등은 추석을 앞

두고 체불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도청에서 함께 회의를 열어 피해 신고 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체불 임금 대지급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용자 금리는 최대 1%포인트(p) 낮춘다.

윤선호 제주도 노동안전감독관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없도록 행정기관과 노사가 힘을 모으겠다”며 “기관별 역할을 촘촘히 나누고 협력체계를 다듬어 체불 임금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추석 앞둔 농산물공판장 추석을 일주일 앞둔 17일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 과일상자들이 쌓여있다. 강희만기자

국회 행안위, 10월 22일 제주 국정감사 관광 치안·도민 항공이동권 ‘주목’

추석 명절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 등 제주 관련 이슈가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약 20일 간 국정감사에 돌입,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의 국정 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업들은 입법, 예산 정책심사에 반영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내달 22일 국회 행안위로부터 국감을 받는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분주하게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행안위 소속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제주 국감에 참여할 예정이다.

2년 전인 2024년 국회 행안위 제주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관광 1번지 제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엔 제주 여행 비용 문제로 국내여행객들이 제주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국감에서도 최근 제주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관광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보장 문제가 거론될 지도 주목된다. 제주도는 국감을 계기로 제주항공노선을 생활필수노선으로 지정하고,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에게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제2공항 갈등 문제, 제주-청다오 항로와 관련한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4분기에 발표하기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반기 지역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부미원기자

주말 동부지역·중산간 강풍 동반 비

곳에 따라 100mm 이상
최저 기온은 22~23℃

이번 주말 제주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주말에 이어 다음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20℃ 초반으로 유지되면서 가을 날씨에 접어든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8일) 제주 동부지역과 중산간·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됐다.

북부와 서부를 제외한 도 전역에는 18일까지 20~60mm의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호우도 예보됐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에는 5~40mm의 비가 내리겠다. 19일 오

전까지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주말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3℃, 낮 최고기온은 26~28℃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다음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20~21℃, 낮 최고기온이 26~28℃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또 제주시동부와 서귀포시동부, 추자도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19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20일까지는 1.5~3.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육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공항 불법드론 검거율 30% 그쳐… 4면 / 유치원 교사들 “아파도 못 쉬다”… 5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농심천심

농심전심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활력을 더하는 참여형 국민운동입니다.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의장 강병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본부장 이준협

농민의 마음에서 국민의 웃음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제주시농협 조합장
고봉주

조천농협 조합장
김진문

함덕농협 조합장
현승중

한림농협 조합장
차성준

한경농협 조합장
김군진

제주고산농협 조합장
고영찬

김녕농협 조합장
오충규

구좌농협 조합장
윤민

애월농협 조합장
김병수

하귀농협 조합장
강병진

대정농협 조합장
강성방

제주안덕농협 조합장
이한열

중문농협 조합장
김성범

서귀포농협 조합장
정기철

효돈농협 조합장
백성익

제주위미농협 조합장
현재근

제주남원농협 조합장
고일학

표선농협 조합장
김용우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박명중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승창구

제주축산농협 조합장
천창수

서귀포시축산농협 조합장
김용관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고권진